

국어과에서의 제주문화 정체성 교육

(Education for Jeju Cultural Identity in the Korean Language Subject Matter)

변 성 구 *

I. 머리말

‘기회의 섬, 제주국제자유도시, 21세기 한국의 비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말 그대로 제주도에게는 도약의 기회일 수 있으나 어떻게 대응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위기일 수도 있다.

21세기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추진되는 국제자유도시는 2002년 4월부터 2011년까지 약 29조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의 투자¹⁾를 통해 홍콩·싱가포르와는 차별화된, 제주 고유의 특성을 살린 동아시아 관광, 물류, 금융의 중심도시로, 그리고 평화의 섬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목표의 실현을 위해 7대 선도 프로젝트²⁾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어(영어) 서비스 강화는 물론 국제화에 따른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 외국인 학교의 설립과 입학 자격 완화, 외국인의 기간제 교원 임용, 초·중등 자율학교의 운영,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등 교육관련 특례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본부에서는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청정환경 보전,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책의 지속적 추진, 도민참여를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교사

1) 고부연,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배경과 전망,” 『교육제주』 115호(2002. 9. 25), 15쪽.
2) 7대 선도 프로젝트는 중문관광단지 확충,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소평아울렛 개발, 생태·문화·역사공원 조성 등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등 부정적인 영향 저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추정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의 오염, 외래문화의 유입에 따른 정체성 상실, 개발에 있어서 도민소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추진본부에서는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또 참여 자치 아카데미, 역사문화 아카데미 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³⁾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은 수립 단계에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개발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될 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일반화되기까지는 얼마만한 시간이 소요될 지 궁금하다.

그리고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⁴⁾. 그러나 아직은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단계이거나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 단계에 있으며, 특히 특정 교과관련 프로그램이나 교재(자료) 개발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제이해교육의 경우 통합교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는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학교현장에서 유용한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이다.

본고에서는 제주문화의 현실과 정체성 교육의 관계를 살펴보고, 한국인·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국어과 수업에서 가능한 학습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국어수업 활동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그 시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제주문화의 현실과 학교 교육

1. 지역문화로서 제주문화의 현실

제주문화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육지부 본토 문화와는 독특한

3)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제주국제자유도시 리플릿」, 10쪽.

4) 고성준·강봉수,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제주도연구』, 제21집 (2002. 6);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지구촌시대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2001). (<http://bugok.ms.kr/intnation/index.html>)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언어 하나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말(馬), 독(鷄)새기에서 보듯이 아래아(·)는 물론 으망자다, 으둑, 으섯, 으름 등 이중 아래아(·)까지 남아있다. 무속신화, 전설, 민요 등 무형문화가 풍부하고, 제주의 자연 환경에 적응해온 의식주 문화 역시 독특하다. 또한 제주문화는 호남문화, 영남문화, 영동문화 등과 위상을 같이하는 지역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는 특정지역의 자연적·사회적·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어온 지역민의 문화⁵⁾이다. 그러기에 지역문화는 중앙문화에 종속된 하위 문화가 아니며, 자율성을 지닌 지역 공동체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⁶⁾

지역문화는 역사와 체험을 공유하는 지역민들이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만들어낸 삶의 문화이기에 지역주민들에게 동질성과 동류의식을 심어준다. 그리고 지역문화는 전승 주체의 삶 속에서 잔존이 아닌 현행문화로서 존재하고, 지역문화가 지닌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동질성은 지역민들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문화란 언어, 관념, 신앙, 관습, 규범, 제도, 기술, 예술, 의례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근본적인 개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문화는 제주지역민들이 모듬살이를 해온 제주도라는 섬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어온 제주지역의 문화로서 제주인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기에 제주문화의 세대적 계승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지역민들의 생활 공간 속에서 자율적으로 문화의 세대적 승계가 이루어져 왔으나, 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촉진으로 핵가족화가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붕괴되면서 전통문화의 승계는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제주인들이 오랜 역사 동안 노동의 현장에서 즐겨 불렀던 김매는 노래나 맷돌·방아노래는 이제 현장에서 불려지지 않고, 인위적인 조건에서만 불려진다. 대신 대중매체를 통해 유입된 트로트 등 전국 공통의 대중가요가 제주 전통사

5) 이경엽, "지역문화와 국어교육," 『국어교육연구』 13 (2001. 12), 84쪽.

6) 중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편하할 때 곧잘 쓰는 지방이란 말과는 다르게 지역은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경엽, 위의 글, 84쪽.

회의 노래문화를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역문화 전승자들이 노령화되면서 지역성을 띤 공동체적인 민속놀이, 민속축제, 세시풍속, 신앙 등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관광 붐과 더불어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자원 개발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쏟아졌다. 그 결과 제주도에도 지역마다 수많은 이벤트성 축제를 만들어놓았다. 왕벚꽃잔치, 유채꽃 큰잔치, 서귀포 칠선녀축제, 서귀포 봄꽃축제, 고사리 꺾기 대회, 용연선상음악회, 성산일출제, 들불축제, 탐라국 입춘굿놀이, 서귀포칠십리축제, 감귤축제, 모슬포 방어축제 등등.

이런 다양한 축제는 지역공동체의 동질성 회복이나 정체성 확립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지자체의 홍보, 관광 수입이라는 목적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처럼 실적 위주, 관광 특수를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성 행사로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나, 그에 따른 문화산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⁷⁾ 왜냐하면 지역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계승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문화의 자생력이 약하기에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제주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벤트성 축제를 통해 문화를 나열해 놓을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로서의 현대적 계승과 동시에 체계적인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점차 제주문화의 전승자가 노령화되거나 세상을 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는 마을단위로, 지역단위로 문화의 승계가 이루어졌으나, 오늘날 도시를 제외하곤 젊은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학교 단위로 제주문화의 승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역문화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문화적 계승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학교에서의 지역문화 교육

학교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문화를 향유하는 데 적용되는 규칙의 체계인 ‘문화 문법’⁸⁾을 가르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지금껏 입시 교육의 과잉 속에 지역문화를 가꾸고 실천하는 문화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제주지역에만 국한된 현

7) 이경엽, 위의 글, 87쪽.

8) 우한용, 『문화교육과 문화론』(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45쪽.

상은 아니지만, 재고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한다. 예로 제주학생의 경우 자신이 삶을 영위하는 제주지역의 전설(예로 절부암 전설)은 모르고 오히려 본토의 전설(용소와 며느리바위)은 알게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국어(상) 교과서에 '용소와 며느리바위'라는 전설은 실려 있으나, 제주에 관한 전설은 실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 전설을 읽고 또 공부한다고 문제집의 문제를 수없이 풀어보고, 가끔씩 시험을 치른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치자.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반문해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문화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는 교육, 참여교육이 되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현장체험 학습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많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의 현장이나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학생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동원 대상으로서 참여한 경우는 문화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000년부터 시작된 7차 교육과정은 지역문화 교육을 위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이념 아래 내세운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보면

첫째, 목표 차원에서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둘째, 내용 차원에서는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셋째, 운영 차원에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넷째, 제도 차원에서는 지역 및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이다.

교육과정은 당시 사회의 흐름을 교육에 반영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번에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은 우선 세계화·정보화에의 적응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또 하나는 재량활동을 확대·신설해 특별활동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편제한 것이다. 재량활동은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교과 및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기 주도적인 능력 신장과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재량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다. 교과 재량활동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학습과 선택과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활동에 관해 국가수준에서는 일반적인 지침만 제시했으며,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목표·내용·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의 특수성, 학교·학생·학부모의 여건, 학습자의 특성이 각기 다른 학교가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창의적으로 재량활동 교육내용을 구성토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재량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분권화, 자율화, 지역화 및 내용의 적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설정된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재량활동은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목할 것은 창의적 재량활동 중 범교과 학습 내용에는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 함양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소비자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범교과적인 교육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이 국제이해교육과 나란히 놓여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해내고 있다.

아무튼 이번엔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학교 교육 모습을 전망하면서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된 인간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다섯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네 번째는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그만큼 학교에서의 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에서는 각 학교급별로 문화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설정하고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의 관계〉

교육목표 인간상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이것은 교육과정 상에 기본적인 국가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것일 뿐,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또 다른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른바 지역문화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이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 서둘러져야 할 것이다.

3. 지역문화의 교육과정화

지역문화를 학교에서 교육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지역 전통문화의 교육과정화이다. 아무리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 업적이 쌓인다하더라도 교육과정화되어 학교현장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 의의는 반감될 것이다.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의 교육과정화 과제를 살펴보면 제주문화의 교육과정화에 대한 암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지역 전통문화를 관련 교과와 연계 지도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목적 아래 2002년 교육청 과제로 지역 전통문화의 교육과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교육청에서 파악한 지역문화의 교육과정화의 현황과 문제점은 첫째,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지역화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둘째, 도시화 현상에 따라 애항심이 부족하다. 셋째, 문화유적지 보존 교육이 미흡하고 지역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실천과제로는 전통 얼 계승 지역화 프로그램 개발, 우리 고장 자랑 발표회, 우리 고장 문화유적지 순례를 내세웠으며, 기대효과로는 지역 전통문화의 교육과정화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다. 그리고 향토문화 유적지 순례 교육의 지속적 추진으로 애항, 애국심이

고취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향토문화예술 체험교육의 확대를 목적으로 전통문화 전승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추진내용 몇 가지를 보면 전통문화 전승교육 중심학교 운영, 전통민속·민요경연대회 개최 및 축제 참가, 향토문화 유적지 탐사활동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교육청 차원의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학교 차원으로 좁혀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좁혀서 교과별로 지역문화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및 교육활동에의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지역문화 교육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4. 제주문화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

앞서도 지적했듯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진척되면 될수록 개방화, 국제화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의 입학 자격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 대학의 설립,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 등 외국인과의 접촉 기회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주의 전통문화는 점점 위축되어 생활문화가 아니라 인위적·조작적인 보여주는 관광문화로만 남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기 전에 제주문화에 대한 정체성 교육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세계는 하나이고 나의 작은 힘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의식과 사명감,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폭넓은 이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주체성, 타인이나 타국의 상이점을 이해하는 관용, 다양한 문화, 정치, 인종, 종교 등의 배경을 가진 세계 각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⁹⁾ 등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세계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이해교육도 필요하다.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적인 시각 혹은 관점에 대한 교육, 문화간 이해(Cross-Culture Awareness)를 위한 교육, 세계적인 문제나 이슈(Global Problems and Issues)에 대한 교육, 세계 각국을 연결시키는 세계체제(Global Systems)에 대한 교육을 추구하는데, 네 영역에서 강조되는 공통적인 측면은 세계의 상호의존성에

9) 세계시민교육활동(http://www.girlscout.or.kr/2001/girl_education.html).

대한 이해이다. 즉, 국제이해교육은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는 교육인 것이다. 여기서는 세계 문제 또는 문화를 개별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상호연계성, 문화간 상호 관련성에 중점을 둔다. 특히 문화간 이해는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다양성이란 국가마다, 민족마다 다양한 문화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문화적 상대주의에 해당한다. 교육의 내용을 보면 타문화의 관점에서 자기문화 조망, 전통 및 자기문화의 보전과 재발견을 강조하고 있다. 이점은 지역문화 정체성 교육과도 상통하는 일면이 있다.

세계시민 교육과 국제문화 이해교육은 정체성 교육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국제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상호의존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이해 교육 등이 필요하듯이, 우리 지역문화의 특질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은 물론 문화적 자긍심 함양 등을 위해서는 문화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 제주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 곧 정체성 교육의 요체라고 한다면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에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문화 계승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미국 이민자의 사례를 통해 문화 정체성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992년 4월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을 상대로한 폭동이 일어났다. 이 폭동은 미국에 이민한 한인들이 경제적 기반 확립만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인종·민족성원들간의 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온 결과, 타인종 타민족성원들로부터 배척당한다는 것을 깨우쳐준 아픈 경험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미국이민 1세대들은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과 민족정체성 교육을 소홀히 해왔다. 그들은 자녀들이 영어를 빨리 습득하고 미국 주류사회로 아무런 장애 없이 진출하도록 의도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고 또래 한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미국문화로의 동화가 이루어지면 미국에서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인과 같은 유색 소수민족에게는 백인 주류사회로의 완전한 동화와 수용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어려서부터 자신의 민족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온 2세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면 자신들이 백인 학생들로부터 다르게 취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모르고 미국식으로 교육받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고 의사소통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심한 경우에는 세대간의 갈등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1세 부모들 가운데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미국에 와

서 고생을 해왔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를 하게 되는 사람이 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인동포사회에서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깨닫고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과 민족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한글학교, 한국학교 등이 도처에 생겨나고 활성화되었다.¹⁰⁾

이 자료에 나타난 미국 거주 한인의 상황과 제주도민이 처한 상황은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민은 한인과 달리 제주·한국문화 속에서 제주인, 한국인으로의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달라질 문화적 상황을 가정한다면 정체성 교육의 중요성은 충분히 감지될 것이다.

Ⅲ. 국어과에서의 제주문화 정체성 교육

1. 국어과의 성격과 교과 편제

(1) 국어과의 성격

국어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이다.¹¹⁾

국어과에서는 국어사용 양상과 내용을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언어와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탐구하고 국어 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심미적인 정서를 기른다. 이를 통해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태도를 길러 성숙한 문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

10) 윤인진, “이민자 철학과 민족정체성 교육,” 1999년 7월 30-31일 재미한국학교 협의회에서의 발표를 위해 준비한 글의 요약문 중 일부임. 윤인진은 재미한인의 민족정체성과 애착의 세대간의 차이, 『재외한인연구』 6호, 66-95쪽 등 해외 동포들의 민족정체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남기고 있음.

11) 제주도교육청,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2001 교육과정장학자료(2001), 303~304쪽.

도록 한다.

국민공통 기본교과인 국어과의 교육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한다. 국어 학습은 국어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며,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게 운용한다. 특히, 국어과 학습은 학습자가 국어사용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활동을 강조하여 국어의 가치를 체험 할 수 있게 한다.

국어과 학습은 학습 능력과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해석적이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준으로 국어를 사용하는 경험이 확대되도록 하는 학습 활동에 중점을 둔다.

(2) 국어과의 목표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국어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용 능력 신장, 국어문화 이해와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세부 목표를 보면

첫째,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3) 국어과의 교과 편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 과목은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 중시,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중시, 교육 내용의 사회적, 개인적, 학문적 적합성 추구, 국어교육의 질 관리와 향상에 중점을 두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 국민공통과정에서 국어를 학습하고, 고2, 3학년, 즉 11-12학년에서 국어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중에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편제되었다.

국어교과의 편제는 7차에서 '국어생활' 과목을 추가 신설하여 언어 생활의 규범적, 예술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어 과목은 보충·심화 과정이 적용되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었다. 문학의 경우는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과 문화', '문학의 가치와 태도'로 구분하여 내용을 제시한 바, 6차와 달라진 것은 문학의 창작, 문학과 문화의 관련성을 강조한 점을 들 수 있다.

2. 국어과에서의 정체성 교육 자료 및 방안

국어과 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정체성 교육과 관련하여 이를 종합한다면 크게 언어교육과 문학교육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어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한국어와 한국문학 교육을 통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에 머물러 있을 뿐, 제주문화 교육을 통한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다.

제주문화의 정체성 교육을 위해 국어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갈래는 제주어, 구비문학(설화, 민요, 무가, 속담, 수수께끼 등), 현대문학(시, 시조, 소설, 수필 등), 민속문화(세시풍속, 민속놀이) 등이 있다.

제주문화 교육을 위한 자료로는 현용준의 「제주무속자료사전」, 「제주전설」, 진성기의 「남국의 민요」,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상)」(자료편), 현용준·김영돈의 「한국구비문학대계」(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남제주군편), 현평효의 「제주방언사전」, 강영봉의 「제주의 언어」, 제주도청에서 발간한 「제주도전설지」, 「제주의 해녀」, 「제주의 민속」 등 제주의 언어, 구비문학, 민속 등에 대한 자료집에 이어 근래 들어 윤치부의 「제주동요사전」, 고재환의 「제주속담사전」, 김영화의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이론편) 등이 발간되어 있다.

김영화의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은 제주문화 교육을 위해 활용 가능한 국어교육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기에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만하다.

이 자료에 소개된 국어교육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문학으로서 제주어를 학습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설화와 민요 외에 현기영의 <마지막 테우리>, 김광협외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을 들고 있다.

제주의 정서를 잘 드러낸 시로는 김광협외 <유자꽃 피는 마을>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유소년 시절 제주에 살았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극히 안온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 이 시를 조용히 음미하면 근대화되기 이전의 제주의 시골마을이 떠오르면서 독특한 분위기와 정서를 갖게 된다. 양중해외 <한라별곡>도 마찬가지다. 제주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라산과 관련된 기억과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 시를 읽은 제주의 독자들은 이 시에 나타난 정서가 자신의 정서와 다르지 않음을 알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¹²⁾ 강동원의 <무적(霧笛)>을 읽으면 제주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간혀 있다는 의식과 거기에 따르는 독특한 정서를 갖게 하는데, 이것은 제주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이기도 한 것이다.

현대시조집으로서 제주적인 소재와 정서를 담은 것들로써 김공친외 <한라의 바람 노래>, 정태무외 <탐라>, 이인석외 <한라 안개 한 자락이>, 고웅삼외 <제주의 바람소리> 등이 있다.

제주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로는 현길언외 <용마의 꿈>, 오성찬외 <어부들>, <돌쟁이>, <한라산>, <돌하르방>, 현기영외 <변방에 우짖는 새>, <바람타는섬>등 대부분이 제주의 서민들이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문학은 제주의 설화, 역사, 자연을 소재로 쓴 작품들이 많다는 특성을 지닌다. 설화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는 현길언외 <김녕사굴 본풀이>, 오성찬외 <막산이>, 문충성외 <자청비>, <설문대할망>, 김용길외 <뱀의 신화>, <영등대왕마님 신위> 등이 더 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조선시대의 역사에 현기영외 <변방에 우짖는 새>, 오성찬외 <연복정>, 오경훈외 <유배지>, 일제 강점기의 역사에 현기영외 <바람타는섬>, 현길언외 <껍질과 속살>, 4·3전후에 현기영외 <순이삼촌>, 현길언외 <한라산>, 오성찬외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한림화외 <한라산의 노을>, 장일홍외 <붉은 섬>, 김석범외 <화산도>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제주를 소재로 한 외지 작가의 작품들로 살펴볼 만하다. 외지인들의 작품은 제주의 자연, 또는 제주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문단에서 큰 비중

12) 김영화, 『변방의 세계: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12쪽.

을 차지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상당한 편이다. 정지용의 <백록담>(문장, 1939.4), 서정주의 <제주도의 한여름>(시집 안 잊히는 일들, 1983), 박목월의 <배경>(시집 난·기타, 1959) 등의 시 작품과 황순원의 <비바리>(문학예술, 1956.10), 이청준의 <이어도>(문학과지성사, 1974), 정한숙의 <IYEU도>(자유문학, 1960) 등의 소설이 있다.

제주의 문학은 본토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자연환경과 역사, 언어와 민속의 독특함-으로 인해 다른 지역, 예로 호남문학, 영남문학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제주문학이 제주인의 정체성 교육의 훌륭한 자료가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거한 자료집들이나 작품들은 아직 국어과 교육에서 교육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 중등국어교육은 입시라는 제도의 테두리에 얽매어 교육부에서 펴낸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거기에 실린 교육 텍스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물론 학교 외의 교육활동에서는 탐라문화제 행사에 있어서 제주어말하기 대회, 제주민속놀이 공연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어과 수업에서는 교사 개인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단편적으로 제주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국어과 교육에서 제주문화를 통해 정체성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제주의 언어와 문학을 활용한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데 있다.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인터넷 등 정보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외래 문화는 자라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게 할 것이다. 국어교과를 통한 교육활동은 정체성 교육에 적합한 과목인 만큼 국어교사들이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제주의 언어, 문학 자료를 활용한 현장 국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주의 언어와 구비문학 관련 자료집의 경우 학술적 가치를 고려해서 발간되었기에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교사들이 쉽게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집으로 재구성되어 학교 현장에 보급되어야 한다.

3. 국어수업을 통한 제주문화 교육

국어교과서 단원과 내용, 형식면에서 유사한 설화, 민요 등 구비문학과 현대 소설, 시, 시조 등 제주문학을 관련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단원을 분석하고, 과제를 개발하여 투입하고 확인하는 방안이 있다.

본고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용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용 국어(상),(하) 교과서를 단원별로 분석하여 제주문화, 문학교육이 가능한 단원을 추출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와 가능한 교수학습 유형 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중학교 1학년용 국어

(중학교 국어 1-1 지역문화 교육자료)

대단원	소단원	지역문화교육 자료 및 과제	참 고 문 헌
1.문학의 즐거움	*심화보충 학습	제주도 자장가 조사하기 육지부 자장가와 비교하기	*『한국구비문학대계』(제주시편, 북제주군편, 서귀포·남제주군편)
3.문학과 의사소통	*심화보충 학습	지명에 얽힌 전설 조사하기 인물에 관한 전설 조사하기	* 현용준, 『제주도전설』 -용두암전설, 산방산 전설 오찰방 이야기, 고종달이 이야기
4.메모하며 읽기	(1) 대나무	제주 전승동요 2편씩 조사하기	*좌혜경, 『제주전승동요』 *윤치부, 『제주전래동요사전』
5. 삶과 갈등	(1)소설 등의보감 *심화보충 학습	제주도 명의 관련 설화(월계 진좌수) 조사하기 *제주작가의 소설 읽기	* 제주도청, 『제주도전설지』 *현길언의 『용마의 꿈』

〈중학교 국어 1-2 지역문화 교육 자료〉

대단원	소단원	지역문화교육 자료 및 과제	참 고 자 료
2. 문학의 아름 다음	(3) 섬진강 기행	성읍 민속마을 기행, 기 행문 쓰기	* 김영돈, 『성읍마을』
	(4) 옛이야 기	제주 신화, 전설을 1편씩 조사, 느낀 점 쓰기	* 현용준, 『제주도 신화』
3. 판단하 며 읽 기	(1) 훈민정 음 완 성되다	제주어 조사하기 -아래아(·)음이 들어있 는 어휘 10개 조사하기	* 현평효, 『제주방언사전』 * 강영봉, 『제주의 언어』
4. 시 의 세계		제주작가의 현대시조 1-2 편 조사, 감상하고 느낀 점 발표하기	* 양중해, 『한라별곡』 * 정태무, 『탐라』
6. 문학과 독자		제주작가, 제주를 소재로 한 소설 감상하기	* 현기영, 『순이삼촌』 * 이청준, 『이에도』

국어 단원이 끝날 무렵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접 제주문화, 문학, 제주어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심화 보충 시간을 활용하여 발표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제탐구학습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되, 단원에 따라 주제발표, 발표토론, 프로젝트 학습법 등 다양한 학습법을 적용하면 효과적인 학습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택해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이고자 한다.

교과서 과제에 따른 국어수업

△ 교과서 : 중학교 국어 1-1

△ 대단원 : 1. 문학의 즐거움 - 보충심화학습

△ 과제 1. 자장 노래를 들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노래를 부르듯이 다음 두 작품을 읽어보자. 그리고 이 두 편의 자장 노래를 참고하여 나의 자장 노래를 지어보자.

자장 노래 1

멍멍개여 짓지 마라
 꼬꼬닭아 울지 마라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엄마품에 꼭 안겨서
 칭얼칭얼 잠노래를
 그쳤다가 또 하면서
 새근새근 잘도 잔다. -예산지방

자장 노래 2

자장자장 우리 애기
 선녀같이 예쁜 애기
 곱게곱게 자는 방에
 괴도 개도 아니 온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셋별같이 맑은 눈에
 조랑조랑 댕히어라 - 고성지방

△ 과제 실천 : 나의 자장 노래(실제 학생작품)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무슨 꿈을 꾸고 있나
 두 손을 꼭 잡고서
 자장자장 우리 아기
 웃으면서 잘도 잔다

이와 같은 수업이 전국 모든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제주도 중학교 교실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위 실제 학생작품은 필자의 자녀가 학교의 과제를 이행한 결과물이다. 이 과제활동에는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한 아무런 교육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 제주인의 정서가 담겨져 있지 않다. 물론 교과서에 예를 든 자장가도 제주도 자장가가 아니라 육지부 자장가이다. 여기서 제주문화에 대한 교육은 살아있지 못하다.

이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어떨까? 위 과제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제시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바꿔서 제시하고 수업을 전개한다.

△ 과제 : 제주도의 자장가를 조사하여 불러보자.(현지조사, 문헌조사)

△ 과제 실천(예시)

제주도 자장가
 자랑자랑 자랑자랑
 우리 아기 줌을 자라
 착흔동아 줌을 자라
 어진동아 줌을 자라
 어질고도 착흔신 할마님
 자손덜이 아닙니까

할마님이 이 즈손을

그늘루멍 키와줍서

윙이자랑 윙이자랑

앗자 천리 사 만리

전후 만리 살피는 할마님으로

못홀 일이 무신 일이 이시리까

(『한국구비문학대계』 9-3, 918쪽)

이 자장가를 부르거나 들어본다면 중학교 학생들이 제주인으로서 새삼 제주 문화의 독특성과 정서의 교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제주어에 대한 교육도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그 외에 교사가 제주도 자장가를 조사하여 그 자료를 유인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느낌을 써서 발표하게 하는 수업 전개, 어렸을 때 자장가를 들어본 경험과 느낌 말하기, 박물관에서 얘기를 재울 때 쓰는 요람(애기구덕) 조사하기, 육지부 자장가와 제주도 자장가의 공통점 차이점 조사발표하기 등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업을 전개한다면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문화에 대한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2) 고등학교 1학년용 국어(상) · (하)

고등학교 국어 수업에서도 위의 중학교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원과 관련하여 제주어 또는 제주문화 교육이 가능한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단원별로 제주 문화·문학 교육자료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여 보았다.

(가) 국어(상) 단원의 지역문화 교육자료

제1단원에서는 소단원(1)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최계천) 단원과 관련하여 순수 제주어 찾기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제주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학습이 가능하다.

제2단원에서는 소단원 (1) 용소와 며느리바위 단원과 관련하여 용두암 전설이나 용머리 전설, 김녕사굴 전설, 백록담, 산방산 전설, 지장새미 전설 등 지명 관련 설화 조사를 과제로 제시하여 수업을 전개한다면 제주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이해시킬 수 있다.

제3단원에서는 소단원(3) 봉산탈춤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무속제의인 영감놀

이를 텍스트로 삼아 영감놀이 내용 요약하기, 봉산탈춤과의 공통점, 차이점 찾기 과제를 통해 제주도에서 형성된 연회와 무속적 사고관을 이해시킬 수 있다.

제4단원에서는 제주어로 된 속담과 대화체 문장을 조사하고, 이를 표준어로 고치는 활동과 의미를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제주어의 표현상 우수성과 제주인의 삶의 방식을 이해시킬 수 있다.

제5단원에서는 소단원 (2) 구운몽과 관련하여 고시홍의 「대통령의 손수건」을 읽고 시대 배경을 파악하게 한다.

제6단원에서는 소단원 (1) 청산별곡과 관련하여 제주민요 오돌또기, 이아홍, 너녕나녕과 같은 통속민요, 방아노래, 해녀노래 등의 사실과 관련지어 감상하면, 제주인들의 정서와 생활문화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제7단원에서는 소단원 (1) 윤홍길의 <장마>와 관련하여 현기영의 <순이삼촌>, 현길언의 <우리들의 조부님>을 읽고 감상문을 쓰게 한다면 제주 4·3 당시 제주인들의 삶과 극복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8단원에서는 소단원 (1) 동국신속 삼강행실도와 관련하여 제주의 열녀설화를 조사하여 정절을 비교하게 한다면 제주여인들의 강직한 삶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1국어(상) 지역문화 교육 자료)

단 원 명	소 단 원명	지역문화 교육 자료 및 과제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1)황소개구리와 우 리말 /최재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순수 제주어 찾기 제주어의 우수성 탐구하기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1)용소와 며느리바 위	용두암전설, 산방산 전설, 김녕사굴 전설 등 조사하여 교과서 전설과 비교하기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2)봉산탈춤	영감놀이 조사하여 봉산탈춤과 비교하기
4. 바른 말 좋은 글	(3)글다듬기	제주속담을 10가지 조사하고 표준어로 고쳐 쓰기
5. 능동적인 의사 소통	(2)구운몽/김만중	고시홍, 『대통령의 손수건』에 실린 소설을 하나 골라 읽고 당시 시대상 발표하기
6. 노래의 아름다움	(1)청산별곡	제주민요 오돌또기, 너녕나녕, 이아홍 조사하기
7. 생각하는 힘	(1)장마/윤홍길	현기영, <순이삼촌>, 현길언, <우리들의 조부>읽고 시대상 파악하기
8. 언어와 세계	(1)동국신속 삼강행실도	제주 열녀설화 조사하기(절부암설화)

(나) 고등학교 국어(하) 지역문화 교육자료

제1단원에서는 제주어 중에서 아래 아(·)와 이중아래 아(∞)가 쓰인 어휘 조사하기 과제를 제시하여 제주어 중에 중세국어의 특징을 보여주는 어휘를 찾아보게 함으로써, 제주어가 중세국어와 맞닿아있음을 알게 한다.

제2단원에서는 소단원 (2) 허생전(박지원) 단원과 관련하여 현길연의 소설 <용마의 꿈>을 읽고 허생과 강좌수의 현실 극복 방안을 비교해 본다. 그리고 조선시대 제주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파악해본다.

제3단원에서는 제주어(사투리)로 제주 설화 1편씩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구어체가 갖는 특징을 이해시킬 수 있다.

제4단원에서는 소단원 (2) 눈길(이청준)과 관련하여, 이청준이 제주도를 소재로 한 <이어도>를 읽게 한다. 그리고 정한숙의 <이어도>와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제주인들의 상상의 세계와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제5단원에서는 소단원 (1) 관동별곡(정철)과 관련하여 제주민요(방아노래, 해녀노젓는 노래)를 조사하고, 관동별곡과 율격을 비교하게 한다. 그리고 제주풍광을 노래한 영주십경가를 감상하고 관동팔경과 영주십경을 비교해봄으로써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해준다.

제7단원에서는 소단원 (1) 춘향전과 관련하여 현기영의 <변방에 우짖는 새>를 선정하여 읽게 하고, 토론 활동을 한다. 그리고 당시 이재수 난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 당시 제사 풍속, 토속신앙과 기독교와의 갈등 양상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조선말기 제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고등국어(하) 단원별 지역문화 교육 자료>

단 원 명	소 단 원 명	지역문화 교육자료 및 과제
1. 국어가 걸어온 길	(2) 중세 국어(中世國語)	·, ∞ 사용 제주어 조사하기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2) 허생전(許生傳) / 박지원	현길연, 「용마의 꿈」 읽고 주인공 비교하기
3. 함께 하는 언어 생활	(2)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 / 진수완	제주 설화 조사하여 제주어로 표기하기
4. 효과적인 표현	(2) 눈길/이청준	이청준, 「이어도」, 정한숙, 「이어도」 읽고 구조 비교하기
5. 감동을 주는 언어	(1) 관동별곡(關東別曲) / 정철	제주민요 영주십경가 듣기, 영주십경 조사하기
6. 표현과 비평	(1) 산정 무한/정비석	제주도 오름 관련지명 조사하기
7. 전통과 창조	(1)춘향전(春香傳)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읽고 토론하기

(3) 문학교육을 통한 문화 정체성 교육

국어교육에서 문학은 언어교육과 동시에 가치관 교육, 인성교육, 문화교육, 윤리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만큼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근래 들어 윤리교육의 화두로 잡아가고 있는 ‘윤리적 상상력의 신장’ 역시 문학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로 김동인의 감자를 읽고, 복녀의 행위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판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학은 ‘생태학적 상상력을 고양’하는 환경교육에도 쓰여야 하며, 역사적 상상력과 관련하여 역사교육에도 유용하며, 민족적·지역적 정체성과 관련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교육에도 쓰여야 한다.¹³⁾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 정보화로 인한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외래 문화의 창조적 수용을 통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에 대한 해명은 바로 문학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문학은 언어적 정보의 함축이 가장 큰 인간의 산물인 동시에 고도의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문화로 존재한다. 따라서 문학교육은 문화교육인 것이다. 문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다.¹⁴⁾ 문학이 문화의 한 양상 이라면, 문학교육은 그 사회의 문화에 입문하여 성장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갖추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¹⁵⁾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적 규칙 체계를 익히고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님의 침묵, 제주민요 해녀 노젓는 노래를 놓고 볼 때, 제주학생은 이 세 작품을 모두 쉽게 이해하고, 인간적인 교섭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없으나, 육지부 학생의 경우 제주민요 해녀 노젓는 노래를 이해하지 못한다. 소통의 단절이 일어난다.

그만큼 문학교육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13) 한국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의 민족성과 세계성』, (태학사, 2000), 66쪽.

14)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77쪽.

15) 문학에서 인간의 문화입문을 다룬 소설을 특히 이니시에이션 스토리(initiation story) 라고 한다. 달리 말해 통과제의소설, 성장소설이라고도 한다.

IV. 맺음말

지역문화의 총화가 곧 한국문화라고 할 수 있다. 제주문화는 그 독특성으로 하여 한국문화의 폭을 넓히는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지금껏 제주문화에 대한 교육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지역문화 교육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현단계로는 정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재량활동 중 범교과 학습의 경우 한국인의 정체성 교육 내용은 현장에서 개발 중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나타난 문화예술부문의 기본방향은 제주문화의 정체성 구현, 제주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광자원화, 지역문화예술의 세계화 추진 등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방향만 설정되었을 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자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본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나라가 비록 지방마다 방언을 쓰고는 있지만, 단일민족 국가이면서 단일어를 표준어로 쓰기에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데 원인(遠因)이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앞으로 열리는 21세기는 개방화 정보화로 특징 지워지는 시대인 만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문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공용어화된 영어의 비중이 증대되고 일상화된다면 국어교육을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 '지구촌 시대'이라는 말을 자주 듣다시피, 우리는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남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지만, 남에게 보여줄 우리 문화를 바르게 알고,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열려있어야 정체성을 지닌 건강한 제주인,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과 학습 시간에 제주문화 교육을 하는데 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의 정리와 교과별 교수학습 모형 및 과정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 정체성 연구, 또는 교육은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과 상호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이경엽. “지역문화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3』. 2001.12.
- 한국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의 민족성과 세계성』. 태학사, 2000.
- 제주도교육청. 『교육제주(115호)』. 2002. 9. 25.
- 제주도교육청. 『제7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고등학교)』. 2001 교육과정 장학자료, 2001.